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움직이는 표지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 • WORK EFFICIENCY

#### WORK & LIFE BALANCE

업무 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한다.  
직급별 순차 대면 보고보다 이메일을 통한 동시 보고를 적극 실행한다.  
사전에 약속된 미팅 시간을 준수하고,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한다.

### • OPENNESS

#### CREATIVITY

직원이 먼저 말하게 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한다.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한다.

### • MUTUAL RESP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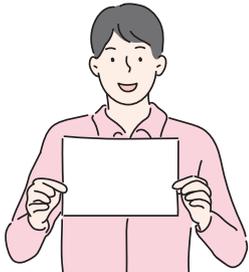
#### HORIZONTAL CULTURE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를 갖추고 배려한다.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을 요청한다.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 • EMPOWERMENT

#### CULTIVATION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을 돕는다.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보내준다.  
직원의 직무순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JUNE 2019

VOL. 451

### COVER STORY



### OPENNESS CREATIVITY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  
집단지성은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협력 또는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는 지적 능력으로, 회의를 이끄는 큰 동인이 됩니다. 집단지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30분 회의> 저자 정찬우 박사는 최소 한 번 이상 발언 기회를 부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리더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직원들 의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거나 큰 논쟁이 예상되는 안건은 각자 의견을 익명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화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30분 회의> 저자 정찬우 박사는 최소 한 번 이상 발언 기회를 부여할 것을 강조합니다. 리더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직원들 의견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거나 큰 논쟁이 예상되는 안건은 각자 의견을 익명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변화하는 우리

### 04 핵심가치 히어로

[정도] 김혜진 사우(법무팀)

### 06 고전 속 핵심가치

[열정] 행백리자반구심  
백리를 가는 사람에게 받은 구심리다

### 08 우수 협력업체

- (주)인우코퍼레이션
- 준코퍼레이션(주)

### 10 달리는 희망 주유소

태양주유소

### 12 가족 추억공작소

배성진 사우(전주지사)

### 14 달콤한 퇴근길

김상필 사우(울산지사)  
[목공예]

### 16 함께하는 풍경

- CFO총괄 워크숍
- 챔피언스 클럽 인센티브 투어
- 마케터 워크숍·마케팅 아카데미

### 21 두런두런 이야기방

- 자율방범대 활동기
- 스페인 여행기
- 근속 기념 푸켓 여행기



04



10



12



14



26



30



## 함께 보는 세상

**26** 꽃청춘 수학여행  
6박8일 축구성지 순례  
[스페인 축구 관람]

**30** 마을숲을 걷다  
감사와 나눔 덕이 머문 산책길  
[포항 덕동마을 숲]

**34** 성장달력  
목표 향한 엔진 가동  
[추진력]

**36** 화학 속 인생법칙  
언덕 너머 신세계  
[전이상태론]

**38** 취미탐구생활  
[스펙형] 취미 정보

**40** 캔버스 연구실  
안료의 화학반응 & 티치아노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 성장의 S-OIL

**42** 주요 경영활동  
• 윤활기유 중국 배급사 사업협력  
25주년 행사

**43** 단신  
• 인천저유소 안전순회  
• 대한민국전기안전대상 은탑산업훈장  
• 윤활기유 국내 고객 기술 세미나  
• 교통사고 피해 화물차 운전자 자녀 지원  
• 국내 선박 수송 선·화주 상생간담회

**45** 햇살나눔  
• HYC공장봉사단 노인복지관 레크리에이션 활동  
• 기독신우회봉사단 시각장애인 동행 나들이  
• 제주 햇살나눔 캠프 후기  
• 연구개발팀봉사단 지체장애인 동행 나들이

**49** 임직원 동정

**50** 독자마당



**[정도] 부문 표창자  
김혜진 사우(법무팀)**

**정도 가치 실현 핵심부서**

기업의 위기관리 대응에 가장 먼저 나서는 팀으로 법무팀을 꼽을 수 있다. 기업 이미지와 직결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법무팀에는 현재 두 명의 책임법무원과 세 명의 전임법무원이 솔로몬의 지혜를 모은다. 부서 내 분위기는 도서관보다 더 고요하지만 매일같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른다. 그리고 이곳은 2018 핵심가치 정도 부문

CEO 표창자로 선정된 김혜진 사주의 일터이기도 하다.

“법무팀은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이나 회사에 직접적 영향을 크게 주는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완료된 것 같아도 후속적으로 계속 살펴야 하는 일이 많 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일이 법적인 사안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공부が必要です.”

최적의 기간 내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업 사안을 해결하는 가운데

이 모든 균형의 방점은  
보편적 타당성과  
공익을 향합니다

**기업 이익과 적법성 확보의 균형**

김혜진 사우의 공적은 대내외의 중층사안을 포괄한다. 회사의 제반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과 각종 계약 검토 등 법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 이익확보와 적법성 확보에 공히 기여한 것은 물론, 공사업체 부도에 따른 대응방안을 찾는 데 있어 회사가 정도 경영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일단락됐지만 공사용역 업체 부도와 관련한 임금체불 문제에 있어서는 김혜진 사우의 정도 가치가 빛을 발했다. “회사가 공사용역을 맡긴 업체가 부도가 나서 회생절차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큰 업체여서 하도급 업체도 많이 관여돼 있었죠. 회사는 원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지만,



회생절차에 들어간 원청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임금이나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채무가 많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작업을 수행했던 근로자들로부터 우리회사로 직접적인 해결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을 적절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중간에 있는 원청업체가 부도가 되면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다. 하지만 이미 원청업체에 용역대금을 지불한 발주자는 이중손실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가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김혜진 사우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회사가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도록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한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익과 적법성 확보를 동시에 좇는 게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가능한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익에만 몰두해 편법을 쓰거나 위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우리회사의 신념이 법무팀을 통해 온전히 실행된다.

**정도의 핵심은 균형**

올해로 입사 8년차를 맞은 김혜진 사우는 아직 해야 할 공부가 많다. 항상 새로운 법이 제정, 개정되며 새로운 판례도 쏟아져 나온다. 시대 변화를 보며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의견이 전달될 수 있어 변호사협회에서 진행되는 외부 교육에도 주기적으로 참석한다. “보통 주어진 업무에 따라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래에는 세무나 회생 관련 문의가 많



았는데 아무래도 특수한 분야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교육도 받고 있어요.”

공부 외에도 업무 연장선에서 안팎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많다. 일반인에게는 법률용어가 다소 낯설고 어려워 현업부서들과 소통할 때 용어 전달, 해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준법 가치 차원에서 기업 이미지를 상징하는 부서인 만큼 위압감 없는 겸손함으로 기업을 대변한다.

“연차가 쌓일수록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담당 사안들도 규모가 남다르고요. 최적의 기간 내,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업 사안을 해결하는 가운데 이 모든 균형의 방점은 보편적 타당성과 공익을 향합니다.” 



**주요 공적**

- ▶ 신규 프로젝트 부지 매입 관련 법률·계약 검토
- ▶ 해상계류시설(SPM) 설치에 따른 취득세 추징에 대한 불복 관련 법리 검토
- ▶ 시설개선공사 용역업체 부도에 따른 대금지급 절차 검토

# 행백리자반구십

## 백 리의 절반은 구십리다



### 공든 탑 무너지지 않도록

진왕(훗날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의 일이다. 진왕은 강력한 군대와 뛰어난 통솔력으로 전국의 일곱 개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 천하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 진왕은 마음이 느슨해져 신하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향락에 빠져들었다. 어느 날 90세 즈음의 노인이 진왕을 찾아왔다. 용모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진왕이 물었다. “노인께선 백 리나 되는 먼 곳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다. “집을 떠나 구십 리를 오는 데 딱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흘 동안 십 리를 걸어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진왕이 궁금해서 물었다. “나머지 십 리 오는 데 열흘이나 걸렸단 말입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처음엔 열흘 만에 구십 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해서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걸었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척 애를 쓴 끝에 열흘 걸려 간신히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구십 리까지 온 것은 거의 다 온 것이 아니라 반을 온 셈이었습니다.” 진왕은 노인이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신을 찾아온 까닭을 물었다. 이에 노인이 대답했다. “진나라의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은 구십 리를 온 것과 같습니다. 이제 겨우 반을 이룬 것일 뿐입니다. 나머지 십 리 길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끈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였다. 정신이 번쩍 든 진왕은 해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더욱 분발해서 마침내 천하통일의 과업을 이뤘다.

핵심가치  
[열정] 편



글. 박수밀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의 말공부>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옛 공부법레들의 좌우명> 등  
저서가 있다.

### 열정에 심은 없는 법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긴장이 풀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도착점에 거의 다 가서 초심을 잃거나 마무리를 엉성하게 하는 바람에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구인공휴일괘(九仞功虧一簣)라는 말이 있다. 아홉 길의 노력이 한 삽태기로 무너진다는 뜻이다. <서경(書經)>의 여오(旅獒) 편에서는 “아홉 길의 산을 만들면서 한 삽태기의 흙이 모자라 공이 무너진다”고 했다. 흙을 쌓아 산을 만들어 아홉 길의 높이에 이르게 됐을 때,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한 삽태기의 흙을 나르는 데 게을리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는 뜻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긴장의 끈을 놓거나 마무리 단계에서 실수하면 그동안의 노력도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공자도 다음과 같이 전했다. “학문은 비유하자면 산을 쌓는 것과 같다. 마지막 한 삽태기를 붓지 않아 산을 이루지 못하고 중지하는 것도 나 자신이 중지하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결국 나 자신에게 있다. <도덕경> 64장에는 “마지막을 처음처럼 신중히 해간다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한다. 일이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마음은 ‘처음처럼’의 태도다.

목표를 이룬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은 집념과 성실함으로 결실을 이뤄내고야 만다. 이를 두고 우리는 열정이라 말한다. 말 그대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혼신을 다해 마음을 불태우는 것이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어느덧 6월, 한 해의 반이다. 달려온 시간을 돌아보며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 채비를 정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다. 🌻



핵심가치 [열정]을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行百里

者半九十

행백리자반구십

백리길을 가는 사람에게 반은 구십리다

行百里者半九十  
行百里者半九十  
行百里者半九十  
行百里者半九十



우리회사는 공급업체와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구매부문 선정 우수 협력업체 인증을 통해 혜택(benefit)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우수 협력업체에는 인증서를 수여하며, 이들 명단을 전자구매시스템(e-Procurement System)에 1년 동안 게시한다. 특히 이 가운데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3개사에는 상패와 상금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우수 협력업체 인증에 이름을 올린 총 9개 기업을 연중 지면에 순차로 소개한다.

# 01

[축매·화공약품]  
분야

## (주)인우코퍼레이션 inwoo corporation

신뢰 높이는 탁월한 기술  
기민한 대응으로 해결력 상승

1993년 설립된 인우코퍼레이션은 금속가공유제, 산업용 첨가제, 윤활유 첨가제 등 석유화학 제품을 취급하는 무역업체로 출발했다. 꾸준한 성장 속에 현재 세계 16개국 30여 개사의 화학 원료와 최고 수준의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 공급한다.

이 가운데 우리회사는 인우코퍼레이션과 지난 8년 동안 유류 식별제와 착색제 공급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인우코퍼레이션은 영국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존호그(John Hogg)사의 에이전시로서 적극적인 소통과 탁월한 기술력을 발휘해 우리 제품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3세대 식별제(mechanical marker)의 기술 역량과 아울러 기술연구소(경기도 안성시)를 통한 연구 인프라 가동으로 제품 관련 문제 해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

2010년 바스프(BASF)의 관련 사업부문을 인수한 존호그사는 에쓰-오일에 대해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성심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절차의 투명성을 기초로 새로운 기술력을 적극 수용하는 에쓰-오일과 더불어 우수 협력업체 인증을 계기로 더욱 성장해나가겠습니다.

〰

(주)인우코퍼레이션  
공성욱 CEO



6월

[축매·화공약품] 인우코퍼레이션  
[기계·장치] 준코퍼레이션

7월

[배관] 코리아인더스트리  
[전기·계장] 지우시스텍

8월

[실험기기] 와이앤유사이언스  
[기타자재] 형지엘리트

9월

[공사·정비용역] 포스코케미칼  
[설계감리·공사관련용역] ABB코리아  
[일반용역] 맥서브

## 02

[기계·장치]  
분야준코퍼레이션(주)  
june corporation안정적 공장 가동  
최상의 설비 관리 기술 지원

준코퍼레이션은 왕복동·원심 압축기와 터빈 제작사인 미쓰이(Mitsui E&S Machinery)사의 한국 대리점이다. 우리회사에 공급된 설비의 보수·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적의 기술을 제공하고 소모품을 적기 공급해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과 차질 없는 제품생산을 보좌하고 있다.

우리회사는 미쓰이사로부터 왕복동 압축기 20기와 원심 압축기 3기, 증기 터빈 발전기 1기 등 설비를 공급 받았다. 준코퍼레이션은 17년째 우리와 협력해오며 최상의 설비 유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증기 터빈 발전기(TG-3601) 설비에 관한 개선 프로젝트는 양사 협력이 빛난 사례로 기억된다. 조속기(governor)를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향상시킨 2016년 공사 과정에서 설비 노후화로 맞닥뜨린 큰 어려움을 함께 돌파해 시운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㉞

우리의 사명은 미쓰이사와 함께 노력해 현장의 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차별화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호 신뢰와 원활한 소통, 신속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수 협력업체 인증을 받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양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㉟

준코퍼레이션(주)  
이재완 이사



오른쪽부터 김창권 소장,  
김정근 대표, 류미업 대표,  
박종성 주유원

## 이유 있는 정직 외길

### 태양주유소

수평선 너머 미명을 밝히며 떠오르는 태양처럼 위기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곳이 있다. 가슴 트이는 삼천포 앞바다를 마당으로 둔 태양주유소다.  
남해에서 사천시로 이어지는 널찍한 도로에 터를 잡고 햇살 닮은 노란  
간판으로 고객에게 반가운 손을 흔든다.



**태양주유소**

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706  
055-833-5200

**실적도 신념도 우수상!**

올해 3월 한국석유관리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 연속 전국 주유소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마다 약 150개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다. 하지만 업계불황 속에서도 묵묵히 한길을 달려 정상을 향해가는 이들이 있다. 탁월한 경영성으로 올해 챔피언스 클럽 우수상을 수상한 태양주유소다.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을 인정받아 기쁩니다. 단지 판매 물량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운영 정책에 충실했기에 수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수상이 처음이 아니다. 2011 챔피언스 클럽 우수상에 이은 두 번째 영광이다. 김정근 대표는 그 비결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

“제 운영철칙은 ‘정직’입니다. 좋은 기름을 파는 정직함 말이죠.”

단순명료하지만 말처럼 쉬운 길은 아니었다. 반경 2km 내에 주유소만 7곳이 자리해 경쟁이 치열한 만큼 기름 가격에 민감하다. 김정근 대표는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값싼 저품질 기름을 팔기보다 정직하게 고품질 기름을 팔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의 고집 있는 경영으로 태양

주유소는 한 달 평균 2천500 드림에서 3천 드림의 실적을 꾸준히 유지하며 진주지사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

“고품질 기름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격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켰기에 오늘날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태양주유소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정 고객은 지역주민들이다. 즉 동네 평판이 성패를 가르는 중요 요인이다. 믿고 쓸 수 있는 기름을 판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제법 거리가 먼 시내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두터운 신뢰를 쌓았다.

**오랜 친구이자 이웃처럼**

접근성을 이유로 주유소를 찾기보다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인근 주유소 검색부터 가격, 제휴서비스, 편의시설 여부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의 선택 기준도 더욱 간간해졌다. 김정근 대표의 아내 류미업 대표는 “기름 값이 단 1만원 비싸도 발길을 돌리려는 고객을 사로잡은 건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 외에도 서비스 경쟁력 덕분”이라고 강조한다. 주유사업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생수, 멀티슈 등 물질적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 태양주유소는 오랜 세월 마음을 맞춘 직원들에게 힘을 실었다.

“어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고객이 먼저 인사를 건넌 정도로 태양주유소 직원들은 10년을 한결같이 한 자리를 지켰다. 김정근 대표 부부에게는 가족 이상의 동반자이자, 단골고객에게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 흔드는 살가운 이웃이다. 경조사까지 살뜰히

챙기는 친근함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태양주유소의 가장 큰 매력이다.

“에스-오일을 널리 알린 주역은 바로 현장에 있는 주유소 직원들입니다. 불철주야 땀 흘린 직원들이 있었기에 고객 만족을 이끌어낸 것이죠. 앞으로 우리회사가 그 노고를 생각해 장기간무자에 대한 혜택과 배려도 마련해주면 좋겠습니다.”

김정근 대표는 머지않아 우리회사와 태양주유소, 직원이 모두 함께 대상을 거머쥘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 



**태양주유소 성공 전략 3**

**1 올곧은 정직함**

인근에 주유소가 몰려 가격경쟁이 치열하지만 태양주유소는 가격보다 품질에 집중한다. 유혹에 흔들려 값싼 저품질 기름을 속여 팔지 않겠다는 정직함을 고수한 결과, 우수한 경영성으로 ‘2019 에스-오일 챔피언스 클럽’ 우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2 정다운 이웃 같은 친근함**

오랫동안 함께 일해 온 직원들은 태양주유소의 가장 큰 재산이다. 정유사업 불황 속에서도 태양주유소를 지탱해준 버팀목이다. 고객의 경조사를 챙기며 친근하게 다가가는 태양주유소는 지역주민들의 어엿한 이웃이 됐다.

**3 눈에 띄는 지리적 위치**

태양주유소는 남해에서 사천시로 이어지는 대로변에 위치한다. 주유소 앞은 탁 트인 바다로 100m 밖에서부터 한눈에 들어온다. 차량 통행이 많고 시야가 트인 입지 조건으로 고객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 사랑 넘치는 슈퍼영웅

## 배성진 사우(전주지사) 가족

첫눈에 반했다는 남편의 사랑고백에 수줍게 미소 짓는 아내,  
결혼 8년차가 무색할 만큼 다정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배성진 사우 부부가 스튜디오를 찾았다. 이날은 두 아이의 엄마로,  
직장에서는 경찰공무원으로 제 몫 이상을 해내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특별한 선물이다.

### 우리는 천생연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스튜디오 가득 번  
진다. 앙증맞은 손으로 작은 꽃다발을 꼭 쥔 채 스튜  
디오 곳곳을 탐색하는 두 남매를 보는 부모의 눈에  
서 사랑이 넘친다. 7살 아들, 네 살배기 딸을 둔 배  
성진 사우 부부는 자녀의 애교에 연신 웃음을 터트  
린다.

“결혼하고 바로 첫째가 생겨 사실 신혼다운 신혼을  
즐길 수 없었어요. 아내가 커리어 욕심도 많은데 일  
도 쉬고 육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기  
도 하고 미안했습니다.”



오른쪽부터  
배성진 사우,  
둘째 배주하 양,  
첫째 배정우 군,  
아내 한진희 씨

두 아이를 키우며 5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밖에 없었던 아내 한진희 씨는 경찰공무원이다. 배성진 사우와 연애했던 당시만 해도 그녀의 보직은 형사였다.

“친한 친구가 여자 동료를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직업이 형사라는 말을 듣고 조금 망설였어요. 뭔가 형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장소에 나가보니 반전 외모의 아가씨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첫눈에 반했습니다.”

화끈한 성격의 배성진 사우는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거침없이 프러포즈했고 다행히 아내의 마음도 배성진 사우를 향했다. 아내와 연애했던 당시 취업준비 중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믿고 기다려준 그때의 아내가 지금도 늘 고맙다.

“난 에스-오일 꼭 취업할 거라고 자신 있게 약속했어요. 아내 응원 덕분에 원하던 곳에 취업하게 됐고 이렇게 예쁜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힐링

촬영 시작되자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다. 특히 막내 주하 양은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이거나 카메라를 향해 연신 까꿍하며 놀이하듯 촬영을 즐긴다. 첫째 정우 군은 오빠답게 든직한 자세로 포즈를 취하며 한 자리를 멋있게 채운다.

“지난해 말 아내가 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어요. 얼마 전에는 바로 승진도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인재인데 집에만 있게 한 것 같아 마음이 쓰였죠. 이제는 복직한 아내를 위해 집안일도 육아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분담하려고요.”

배성진 사우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 한진희 씨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격려한다.

“뭐든 잘 해요. 아이들이 아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친구처럼 잘 놀아줘요. 다만 요즘 많이 피곤해보여 걱정이 돼요. 저도 옆에서 잘 챙겨줘야죠.”

아내가 아침마다 영양제를 한가득 손에 담아 준다며 약 때문에 목이 막힌다고 너스레 떠는 남편이지만 자신을 위해주는 마음이 고맙다.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  
[밝고 건강하게](#)  
[자라래](#)

[여보](#)  
[늘 고맙고](#)  
[사랑해](#)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 덕에 배성진 사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가정과 일의 양립이라는 취지처럼 야근이 잦던 이전보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만족스럽다. 한진희 씨 또한 요즘은 가족과 함께 저녁 있는 삶을 보내게 됐다며 즐거운 변화를 반긴다. 구김 없이 맑은 아이들이 표정이 말해주듯 배성진 사우 가족의 날씨는 초여름 태양처럼 반짝인다.

### 추억 앨범에 저장될 이 순간

스튜디오의 다양한 배경 앞에서 가족촬영을 진행한 네 가족은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레 퍼지는 웃음이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한다. 어린 남매의 탁월한 협조 덕분에 속전속결로 사진촬영이 끝나고 이어 피규어 촬영이 진행됐다.

3D 장비 특성상 몇 십 초간 움직임 없이 스캔해야 하는데 역시 가장 어린 막내에게 가족의 시선이 쏠린다. 그때 아빠의 특효약이 등장했다. 바로 주하 양이 가장 좋아하는 뽀로로 영상이다. 시선 정면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재생하는 동안 스캔 장비로 신속하게 주하 양의 모습을 담았다. 정우 군도 동생을 응원하며 어엿

한 오빠 노릇을 한다. 무사히 막내의 촬영을 마친 뒤 남은 가족도 저마다 자세를 잡고 피규어 촬영에 들어갔다. 특히 정우 군의 능률한 태권도 자세에 현장의 스태프 모두 멋지다고 엄지를 치켜세운다.

한편 항상 아이들 사진으로 카메라 앨범이 가득찬 부부를 위해 이날 둘만의 사진도 남겼다. 연애했던 때처럼 아내 어깨에 팔을 얹고 시선을 마주치자 서로 먼저랄 것 없이 웃음을 내뿜는다. 그래도 영원히 간직할 이 순간을 남기기 위해 남편과 아내는 두 손을 꼭 잡고 카메라를 향해 활짝 행복을 터트린다. 🌻

# 나뭇결에 깃든

## 정

### 목공예

글. 김상필(울산지사)  
사진. 디자인소호

#### 몰입과 성취

결 고운 나무가 따뜻한 기운을 뿜는다. 캄포(Camphor) 원목이 내놓는 가벼운 박하향은 기분까지 어루만진다. 그 가운데서 목공예의 즐거움에 빠진 지 3년여가 흘렀다. 이타적인 의도에서 처음 손댄 목공예는 결국 주변 모두를 위한 취미가 됐다. 원목가구가 세월 속에 길들어 한층 짙은 색을 내는 것처럼 몰입의 시간이 쌓일수록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있다.

첫 작품이 나온 건 타 지역에서 울산지사로 돌아온 뒤 2개월 뒤인 2016년 5월쯤이다. 곧 있을 임원진의 지사 방문을 맞아 동료들과 사무실을 정돈하던 중 유독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다. 지사가 합심해 타낸 각종 상패들이었다. 캐비닛 위에 어정쩡하게 줄 서 있는 상패를 선반에 올려두면 좋을 것 같았다. 그 길로 나무판과 톱, 대패, 못 등을 준비하고 두 팔을 걷었다. 목공예에 발 들인 순간이다.

지사 건물 밖 작은 공터에서 푹푹푹푹 선반을 만들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사무실 한쪽 벽에 선반을 세우고 상패들을 채웠다. 만든 사람은 그다지 흡족하지 않았음에도 칭찬이 이어졌다. 임원진 방문에 따른 소통 행사도 순조롭게 끝났다.



woodcraft



원목가구가  
세월 속에 길들어  
한층 짙은 색을 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있다



## 목공예 정보상자



### STUDIO

#### 우드메이드

한국DIY가구공방협회가 인증한 목공지도자양성 교육장으로 일반 동호회원도 모집한다. 주1회,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며 저녁 9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3길 10-8  
<https://diywoodmade.modoo.at>

### YOUTUBE

#### The Wood Whisperer

국내에서도 번역본으로 발간된 <하이브리드 목공> 저자의 유튜브 채널이다. 5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가 목공작품별 제작과정을 단계별로 촬영한 동영상마다 엄청난 조회 수를 기록한다.  
[www.youtube.com/user/TheWoodWhisperer](http://www.youtube.com/user/TheWoodWhisperer)

### BOOK

#### <철학이 있는 목공수업>

가구 만들기 기초부터 공방 창업까지 현대 목공 기술을 총망라한 책이다. 가구 재료인 나무와 부자재, 수공구와 목공기계 사용법 등을 모두 쉽게 풀이했다.

하지만 목공예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목공 입문자가 흔히 그러하듯 가구부터 만들었다. 때마침 동료가 생활공간에 놓을 앉은뱅이 탁자를 만들어 달라 청해왔다. 아이들 책상도 그 즈음 제작됐다. 미흡한 첫 완성작들이다. 이후 가구를 하나 둘 더해가며 기술을 익혔다. 서랍장, 거실 탁자, 식탁 등이 순차로 탄생했다. 우리집 빈 공간과 우리가족 효용에 꼭 맞춘 가구라니, 성취감이 상당했다. 품목이 다양해지고 작업이 거듭되면서 완성도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

### 똑딱똑딱 나눔 작업실

결국 목공예를 시작한 이듬해, 시내 한 주유소 지하실에 개인 작업실을 꾸렸다. 주유소 대표께서 배려 해주신 덕이다. 원목을 직선 또는 곡선으로 자를 수 있는 절단기를 비롯해 목공예 장비 서너 대가 구비돼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 집으로 옮긴 목공 가구가 15점 정도다. 그중 식탁은 목공예로 얻는 기쁨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아이들이 자라 식탁을 교체해야 할 시점이었기에 각별히 집중한 덕분인지 결과물이 좋았다. 동네 사람들이 와보고는 한목소리로 호평하니 보람이 컸다. 나와 아내,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고 만든 가구가 궤도에 오르자 친척들이 보였다. 양가 모두 형제가 많아 식탁만 4개를 전했다. 주유소도 예외가 아니다. 젊은 대표자 분의 결혼 소식에 손수 만든 가구만큼 뜻깊은 선물이 없었다. 근래 선배직원이 정년퇴직을 맞이했을 때도 목공예는 석별의 정을 대신해줬다.

최근 천착한 것은 도마다. 생각보다 훨씬 값진 목공 품목이다. 식재료가 날 것 그대로 오르고, 칼질에 따라 깊고 거친 흠집을 피할 수 없다. 그만큼 질 좋은 원목을 택해 정확한 수평과 매끈한 표면으로 가공한다. 최후에 덧바르는 오일마저 손끝 감각을 예민하게 세워 문지르곤 한다. 특히 나뭇결이 그대로 일정한 패턴을 이루도록 작은 조각을 이어 붙이는 엔드그레인(절단면을 노출한) 도마는 그 자체로 명품이다. 열흘 남짓 공 들어 완성한 엔드그레인 도마로 목공예의 정교한 매력을 경험했다.

목공예로부터 나눔에 관한 새로운 모티프를 얻는다. 동료들과 손 모아 도마를 제작한 뒤 이들을 지역사회 복지기관 행사 현장에서 판매하는 일을 구상하고 있다. 구매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나눔의 의미를 확장하고, 최종 수익금은 직접적인 나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료들과 여가 시간을 맞춰 기술을 좀 더 연마하고 싶다. 기꺼이 즐기고 있는 목공예를 사랑하는 동료와 함께하면서 이웃도 이롭게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 함께 만드는 위대한 변화

## CFO총괄 워크숍

글. 안우근(회계팀)

CFO총괄 워크숍이 5월 11일 농협대학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총괄 산하 각 조직의 주요 추진과제와 실행 계획을 공유해 전체 성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역량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조영일 수석부사장, 김명수 상무(Controller), 조용국 상무(Treasurer)를 비롯해 생산 회계팀을 포함한 12팀 95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워크숍 참가자들은 5개월 동안 '변화'라는 화두로 개인 업무를 살피며 관성적으로 실행되는 불필요한 업무와 그에 대한 개선점을 검토해왔다. 워크숍 현장에서는 CFO총괄 전체가 한마음으로 이뤄낸 변화의 결과물을 되돌아보고 그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5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은 총 97개의 업무 효율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본부 기준 업무시간 절감효과가 연간 총 6만685시간(인당 평균 63.66시간)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일정에 이은 점심식사 뒤에는 트레킹이 진행됐다. 농협대학교 인근 원당종마공원과 서삼릉을 잇는 길에서 임직원들은 발걸음을 이어가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열린 대화에 동참했다. 워크숍 뒷풀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은 서로 간에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며 새 목표에 대한 공감과 합의를 이뤘다. 🌻





## 함께 나누는 감동

### 자신감 up! 추억은 덤

글. 장성제(신용관리팀)

CFO총괄 임직원이 직접 본인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시행한 뒤,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모든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지금까지 갇혀있던 틀에서 벗어나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합리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무엇보다 사무실이라는 경직된 장소가 아닌 탁 트인 야외에 나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어 더욱 유익했다.

### 벽 허문 소통, 변화의 시작

글. 신원석(회계팀)

5월 11일은 CFO총괄 구성원들의 위대한 변화의 결과를 공유하는 날이자 모두가 한데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 오전 세션은 워크숍 주제인 위대한 변화에 대한 외부 전문가 초청 강의로 시작됐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CFO 조직 구성원들의 변화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각자 사례들을 모아보니 결코 작지 않은 변화였고, 실제 업무시간도 경감되는 생산적인 결과를 발견했다. 오후에는 가벼운 트레킹과 함께 조별로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벽을 허물고 생각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 영광의 트로피 달콤한 여정

### 챔피언스 클럽 인센티브 투어



올해 챔피언스 클럽 시상식이 4월 24일 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 진행됐다. 어려운 시간환경을 극복하고 탁월한 경영성과를 이뤘던 총 52개 주유소·충전소가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 회사는 주유소·충전소 대표자와 관계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투어를 마련했다.

주유소·충전소 관계자와 우리회사 임직원을 포함해 총 119명은 이번 인센티브 투어지인 괌을 향해 시상식이 끝난 뒤 곧바로 출발했다. 3박5일의 일정으로 업무현장에서 벗어나 모처럼 휴식을 만끽했다. 🌴



## 백찬 감동 소중한 추억!

### 몸도 마음도 재충전

글. 박청동(홍남주유소 대표.전북 군산시 팔마로)

챔피언스클럽 대상으로 선정된 것도 영광인데 특별한 여행을 선물 받아 매우 행복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 배려와 정성으로 투어 출발부터 도착까지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부족함 없이 세심하게 준비해준 에쓰-오일에 감사인사 전하며, 이번 투어를 통해 재충전한 만큼 좋은 기운으로 주유소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한 식구

글. 문성필(백산주유소 대표.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몇 차례 챔피언스클럽 수상 경험이 있지만 올해 시상식과 투어는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광 투어 당시 넉넉한 자유시간 덕에 충분한 쉼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개선, 발전하는 행사가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에쓰-오일과 한 식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다음에는 대상 도전

글. 류미업(태양주유소 대표.경남 사천시 사천대로)

주유소 간 판매 경쟁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믿고 정책에 호응하며 노력한 데 대한 보상인 것 같아 정말 기쁩니다. 바쁜 주유소 경영으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 투어를 통해 좋은 추억도 쌓고 휴식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에쓰-오일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보람을 동력 삼아, 다음번에는 대상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 같이 가치!

글. 김을테(대신주유소 대표.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

챔피언스 투어는 매우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함께 선정된 주유소 대표들과 3박5일을 함께하는 동안 급격히 변화하는 어려운 시장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임을 느끼며 위로와 위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에쓰-오일 가족이자 동반자로서 현장에서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유소로 발전,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 영업 역량 기초 튼튼

## 마케터 워크숍·마케팅 아카데미

글. 이동인(영업전략팀)



국내영업본부 직원의 영업 역량강화를 돕는 마케터 워크숍·마케팅 아카데미가 5월 9~2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약 160명의 참가자들은 총 4차로 나뉜 마케터 워크숍·마케팅 아카데미 일정에 따라 각 차수 1박2일 프로그램에 임했다. 이 가운데 마케터 워크숍은 총 10개 강의를 통해 국내영업본부장 간담회, 임원 특강, 중점 추진과제 공유 등을 다뤘다. 이와 함께 마케팅 아카데미는 차수에 따라 신용·규정·법, 협상, IT심화 등 분야의 8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국내영업본부의 중점 추진과제를 상세히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올해 신설한 신규 유치 우수사례 발표 세션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저마다 현업에 복귀해 신규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현장대화(Can-Meeting)는 서로 다른 본부·지사 소속 직원 간에 유대를 강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다.

올해 처음으로 통합 시행된 마케터 워크숍·마케팅 아카데미는 참가자 중 대다수의 높은 선호의견 속에 제도 보완을 목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 효용도 높은 강의 콘텐츠 공유를 위해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강의에 대한 질의응답 프로세스를 마련해 집중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 우리 동네 안전 파수꾼

## 자율방범대 활동기

글. 서정환(해상출하과)



2007년에 울산시민으로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처음 시작했다. 기존 활동이 수년 동안 중단된 상태에서 주민 자치센터장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단위지역으로 15명 대원을 구성하고, 끈이어 나는 대장으로서 인원을 더 끌어 모았다.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 일을 많은 사람이 인정해줬다. 2017년에 이어 2018년 울산 남부경찰서로부터 최우수 방범대로 선정돼 경찰청장 명의의 감사패를 받았고, 최근에는 울산시내 총 68개 자율방범대 가운데 올해 1분기의 '베스트 자율방범대'를 차지해 인증패와 감사증을 수상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우리 자율방범대를 포함해 시민명예경찰, 생활안전협의회, 여성명예파출소장, 전의경회 등과 힘을 합쳐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치안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된 여러 방범단체와 경찰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안전한 울산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 가운데 자율방범대는 심야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활동한다. 골목과 공원 등 지역민으로서 흔히 꿰뚫고 있는 생활환경 내 공간들을 살살이 살피고, 미성년자 출입이 잦은 장소나 우범 지대를 중심으로 비행 청소년 선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자율방범대 활동은 공동체에 헌신한다는 사명감에서 시작됐다. 나이가 에스-오일 소속으로서 회사가 견지하는 핵심가치를 실천해 지역사회에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 이런 꾸준한 활동이 결국은 우리회사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기쁨 있는 시간 산책

## 스페인 여행기

글. 김정한(동력6과)



### 춤과 건축을 사랑한 나라

우연한 기회로 지인이 거주하는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됐다. 다른 가족까지 합류해 총 10명의 일행과 파리를 경유하는 바르셀로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자 지인이 공항으로 마중 나온 덕에 숙소까지 편하게 이동했다. 5월 11일부터 열흘 동안 펼쳐질 여정의 시작이었다.

다음날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관광에 나섰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천재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가 설계한 고풍격 맨션, 까사 밀라다. 1906년에 설계해 1910년에 완공한 이곳은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건물 어느 곳도 일직선으로 된 벽이 없어 당시 고정관념으로 보면 호불호가 갈렸을 것으로 짐작됐다. 까사 밀라 관람을 마친 뒤 분수대가 아름다운 카탈루냐 광장과 레알 광장을 산책했다. 5월의 눈부신 햇살이 아름답게 내리

쬐었다.

여행 셋째 날, 우리는 바르셀로나 구시가지 중심인 고딕지구(Barrio Gòtic)를 둘러봤다. 원형 그대로 보존된 13~15세기 건축물과 카탈루냐 자치정부 청사, 시 청사 등이 이곳에 자리했다. 고딕 양식들로 구성된 구 시가지와 바르셀로나 대성당 주변을 걷노라니 중세시대로 타임슬립한 듯했다. 파스타로 간단히 허기를 달랜 우리는 시우타데야 공원과 개선문을 통해 지중해로 향한 뒤 그곳에서 낭만의 모히또 잔을 들고 분위기를 만끽했다. 석양이 질 무렵, 더 머물고 싶은 아쉬움을 안고 다음 일정을 위해 몸을 일으켰다. 이날 마지막 목적지는 스페인 민속무용 플라멩코 공연장이다. 많은 인파에 놀란 것도 잠시, 어느새 우리도 샹그리아 잔을 손에 들고 열정의 플라멩코 무대를 즐기고 있었다.





### 시간을 거슬러 중세마을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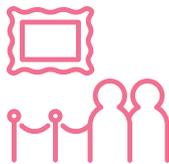
그날 이후로도 스페인은 가는 곳곳 다양한 모습으로 이국의 여행객을 맞이했다. 특히 국내에서 방영한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드라마 속 촬영지인 지로나가 인상 깊었다. 중세시대 건물들이 잘 보존된 구시가지로, 로마네스크, 바로크, 고딕 양식이 조합된 대성당이 특히 유명하다. 대성당에서 차로 30여 분 가량 달리면 한적한 중세마을 페라타야다가 나온다. 상당히 잘 보존된 중세의 요새 마을로 황금빛 사암으로 만들어진 중세 건물들과 골목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여행 중에 뜻밖에 반가운 곳도 방문했다. 늘어진 시계 그림으로 유명한 <기억의 지속>을 그린 작가 살바도르 달리의 생가가 있는

곳이었다. 우리나라 어촌과 비슷해보였지만 작은 조각품들을 이용해 예술마을로 꾸민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작가 생가와 마을을 둘러본 뒤 우리는 인근 와인생산 시설 페렐라다로 발길을 돌렸다. 소문난 와인 애호가인 살바도르 달리는 여생 대부분을 이곳 옴포르다 지방에서 보내며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에게 페렐라다 와인은 늘 함께하는 친구였다. 달리의 안목이 말해주듯 오늘날 페렐라다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와인 기업이 됐다.

숨 가쁘게 달려온 사이 우리의 여행도 어느덧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다. 베살루 지역으로 이동한 이날은 축축한 비가 대지를 적셨다. 이곳에는 강가를 요새화 해 쌓은 성과 아

름다운 다리, 성페리 수도원 등이 오롯이 남아 있다. 거의 모든 형태의 주거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이발소, 부동산사무실, 카페, 호텔, 레스토랑 등 가게를 열고 관광객들을 맞이했다. 베살루 역시 동화 속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다.

스페인에서의 열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위대한 역사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의 소중한 일터에서, 가족과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쌓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





## 성실한 시간이 선사한 오늘

### 근속 기념 푸켓 여행기

글. 이재혁(아로마틱생산2과)

#### 에메랄드 빛 섬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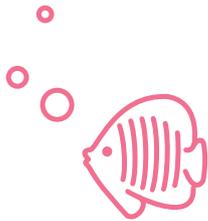
올해 입사 10주년을 맞아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태국 푸켓으로 여행을 떠났다. 팀 구성이 어려울 뻔했지만 동기들을 모아 설득한 끝에 여행이 성사됐다.

푸켓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국의 풍경에 여행을 온 게 실감났다. 주변 감상도 잠시, 우리는 습한 날씨 탓에 서둘러 현지 가이드를 따라 호텔로 이동했다. 한적한 해변이 보이는 숙소는 대형 야외 수영장을 보유하고

피트니스 시설과 스파, 골프장 등을 두루 갖춘 곳으로, 방에서도 해변의 멋진 풍경을 조망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여행 첫날, 일찍 서둘러 조식을 마친 뒤 태국 푸켓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피피섬으로 이동했다. 입사동기 15명과 스피드 보트를 타고 영화 <더 비치>의 배경이 된 피피섬을 둘러봤다. 로사마베이, 바이킹동굴, 몽키비치 등 주요 명소도 관람하고 스노클링도 체험했다. 에메랄드 빛 아





름다운 바다와 마주하니 마음까지 맑아지는 듯했다. 이날 해변의 석양이 보이는 곳에서 즐긴 바비큐는 결코 잊지 못할 만찬이었다.

#### 오감 즐거운 태국의 만찬

여행 셋째 날, 첫 일정은 산호섬 투어다. 우리는 고급스런 단독 요트를 타고 바나나비치해변으로 이동했다. 전날과 다르게 날씨가 변덕을 부렸지만 해변에서 스노클링하는데는 무리가 없었다. 첫날의 경험 덕에 자신감이 생겨 좀 더 멀리 나가 스노클링했다. 첫날과는 또 다른 바닷속 풍경에 소리 없는 감탄사를 내질렀다. 코로는 지옥을 경험하고 입으로는 천국을 느낀다는 두리안도 먹었다. 고약한 냄새 때문에 쉽게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막상 한입 맛을 보니 거부감은 눈 녹듯 사라졌다. 중식을 먹은 뒤에는 요트에 올라 즐낚시도 체험했다. 역시 여행의 즐거움은 먹는 재미인 듯하다. 일행 중 한 명이 고급어종인 다금바리를 잡은 덕에 싱싱한 회를 맛볼 수 있었다.

어느덧 여행 4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날은 전일 자유시간이다. 전날까지 외부 일정을 소화하느라 막상 호텔 내 시설을 이용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지막 날인 만큼 수영장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여행의 대미를 장식한

석식을 즐기기 위해 강가를 전망으로 한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라이브 연주 속에 랍스타와 싱싱한 해산물 요리를 먹으며 태국의 맛에 흠뻑 빠졌다. 동기들과도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태국의 밤과 인사했다. 2009년 같은 해에 입사했지만 근무지가 다른 탓에 초면이나 다름없었던 우리는 여행이 끝날 즈음 오랜 고향친구와 이별하듯 아쉬운 인사를 주고받았다. 입사 10주년을 맞이까지 성실하게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며 5일간의 꿈같은 여행을 마무리했다. 🌈



# 축구 성지

## 순례

### 스페인 축구 관람

글·사진. 남궁 준  
(축구 여행 전문 코디네이터)

스페인 축구는 매혹적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경기는 마치 아름다운  
플라멩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수만 명 관중이 쏟아내는  
환호는 나를 향한 응원처럼 주먹을  
불끈 쥐게 한다. 스페인 축구의  
양대 산맥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 경기를 직관한다면  
인생축구를 경험한 것이나  
다름없다.



1월 1박3일 홍콩 팀성수업	2월 2박3일 일본 미술캠프 탐방	3월 3박4일 베트남 크루즈 여행	4월 4박5일 태국 요리수업	5월 5박6일 몽골 유목체험	<b>6월</b> <b>6박8일</b> <b>스페인</b> <b>축구관람</b>	7월 7박8일 핀란드 오로라 탐방	8월 8박9일 터키 역사기행	9월 9박11일 쿠바 올드카 여행	10월 10박12일 볼리비아 바리스타 수업	11월 11박13일 오스트리아 클래식 공연	12월 12박13일 인도 명상기행
--------------------------	-----------------------------	-----------------------------	--------------------------	--------------------------	---	-----------------------------	--------------------------	-----------------------------	----------------------------------	----------------------------------	-----------------------------

## Travel Information

비행시간	약 13시간
시차	한국보다 7~8시간 느림
화폐	유로, EUR € (1유로 ≈ 1,300원)
교통수단	고속열차, 지하철, 버스 등

### 여행 정보 추천 사이트

- ▶ 라리가 공식 사이트 : [www.laliga.es/en](http://www.laliga.es/en)
- ▶ FC 바르셀로나 공식 사이트 : [www.fcbarcelona.com/en](http://www.fcbarcelona.com/en)
- ▶ 레알 마드리드 공식 사이트 : [www.realmadrid.com/en](http://www.realmadrid.com/en)



### 6박8일 스페인 축구 관람 추천 일정

\*스페인 축구 시즌은 해마다 8월 중순~5월 중순이며, 국가대표 A매치 기간과 성탄절 휴식기에는 경기가 열리지 않는다.

- DAY 1** 항공편 이용 → 마드리드 도착 → 호텔 투숙 뒤 휴식
- DAY 2** 솔 광장 → 마요르 광장 → 알무데나 대성당, 왕궁 → 스페인 광장 → 레알 마드리드 경기 관람
- DAY 3** 호텔 체크아웃 → 레알 마드리드 스타디움 투어 → 마드리드-바르셀로나 고속열차(AVE) 이동 → 바르셀로나 도착 → 호텔 체크인
- DAY 4** 가우디 가이드 투어
- DAY 5** 람블라스 거리 → 고딱지구 → FC 바르셀로나 경기 관람
- DAY 6** FC 바르셀로나 스타디움 투어 → 몬주익 성 → 바르셀로나 해안
- DAY 7** 호텔 체크아웃 → 공항 이동·항공편 탑승
- DAY 8** 귀국(기내 1박)



- 1 홈구장인 캄 노우 스타디움을 누비는 FC바르셀로나 선수들
- 2 킥오프 직전 양 팀의 긴장감 넘치는 기싸움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다
- 3 FC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골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자축한다
- 4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캄 노우 스타디움
- 5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인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 외관
- 6 아랍 에미리트와 레알 마드리드 친선경기를 알리는 전광판

**추천 Point**

**경기 관람부터 스타디움 투어까지**

스페인 유수의 축구팀 가운데 라 리가(La Liga, 스페인 최상위 축구 리그)를 대표하는 세계 최고의 명문팀을 꼽자면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다. 두 팀의 홈경기를 볼 수 있도록 일정을 짰다면 축구 여행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좀 더 깊이 있는 축구여행을 원한다면 구단이 운영하는 스타디움 투어를 추천한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사용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드레싱 룸과 벤치 등 공간을 자세히 둘러보고 구단의 역사를 배울 수 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스타디움 투어는 유럽 최고 수준의 투어로 명성이 높다. 경기가 열리는 당일에는 스타디움 투어가 취소 또는 축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운영 일정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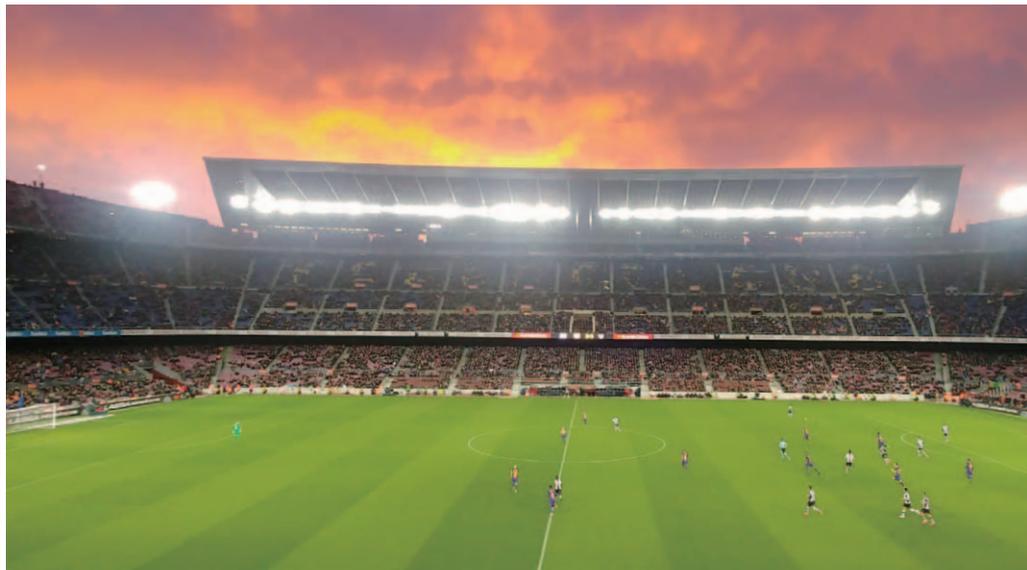
구단 스토어(기념품 가게) 방문도 놓치면 후회할 필수 코스다. 구단 유니폼은 물론 장난감, 열쇠고리까지 다양한 용품들이 구비돼 있다. 본인이 원하면 이름과 번호를 새길 수 있다.

**스페인 축구티켓 구입 방법**

라 리가, UEFA 챔피언스리그 등 주요 대회 티켓은 각 구단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반드시 홈 경기를 개최하는 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 축구 티켓 가격은 각 경기별, 블록별로 천차만별인데,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1장당 약 150~200유로(한화 약 19~26만 원)정도면 좋은 자리에서 경기를 볼 수 있다. 스페인 축구는 사전 예약 시스템이 정착돼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에 티켓 구입을 완료하고 떠난다. 현장 매표소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나 매진으로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인터넷 예매가 안전하다. 축구 티켓은 환불·취소가 불가능하다.

- ① Tickets → ② Football 순서로 클릭 →
- ③ Ticketets/MIP Ticketets 클릭(가격·좌석별 선택) → 결제 진행

- ▶ FC 바르셀로나 공식 홈페이지 [www.fcbarcelona.com](http://www.fcbarcelona.com)
- ▶ 레알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 [www.realmadrid.com](http://www.realmadrid.com)



**관광 Point**

**주요 경기장**

**①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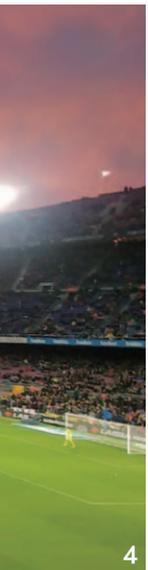
유럽축구연맹(UEFA)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대항전이자, 유럽 각국의 프로 축구리그 우승팀과 상위팀들끼리 벌이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4회나 개최한 스페인 축구의 성지다. 시가지의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경기장으로, 경기 당일이면 주변 도로가 축구팬들로 가득 차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b>구단</b> 레알 마드리드, 1947년
	<b>수용인원</b> 약 8만1천 명
	<b>대중교통</b> 마드리드 지하철 10호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Santiago Bernabeu) 역 앞

**② 캄 노우**

유럽 최대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이다. 10만 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분위기는 이 경기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캄 노우의 기적'으로 불리는 1998-99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등 다양한 빅 매치가 이곳에서 이뤄졌다.

	<b>구단</b> FC 바르셀로나, 1957년
	<b>수용인원</b> 약 10만 명
	<b>대중교통</b> 바르셀로나 지하철 3호선 레스 코르츠(Les Corts) 역, 5호선 콜블랑(Collblanc), 바달(Badal) 역에서 도보 10분



4



5



6

**체험 Point**

최소 경기 시작 2시간 전에는 스타디움에 도착한다. 축구 팬들로 이미 만석인 선술집, 구단 용품을 판매하는 노점상 등 경기 전부터 주변에 볼거리가 많기도 하거나 입장할 때 보안 검색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킥오프(경기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킥) 약 30분 전부터 선수들이 몸을 푸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므로 일찍 입장하는 것이 좋다. 킥오프가 가까워지면 웅장한 구단 주제가 울려 퍼지면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다.

황홀한 축구 쇼가 끝난 뒤 숙소 근처 식당에서 맛있는 스페인 음식을 즐기며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풍성한 축구 여행이 완성될 것이다. 🌟

# Stadium

**스페인**

**주요 스타디움 투어 정보**

\*각 날짜별로 상이하므로 구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①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투어 베르나베우(Tour Bernabeu)**

<b>예약</b>	www.realmadrid.com/en/tickets/bernabeu-tour
<b>입장료</b>	성인 25유로(약 3만3천 원), 어린이(만 14세까지) 18유로(약 2만3천 원)
<b>운영</b>	경기 당일 제외 매일 운영
<b>시간</b>	(단, 성탄절 당일·1월 1일 휴무) 월~토 10:00~19:00, 일·공휴일 : 10:30~18:30

**② FC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 노우 익스피어리언스(Camp Nou Experience)**

<b>예약</b>	www.fcbarcelona.com → Tickets → Tour&Museum 순으로 클릭!
<b>입장료</b>	성인 26유로(약 3만4천 원), 어린이(만 6~13세)·만 70세 이상 20유로(약 2만6천 원) *성수기 7~8월에는 해당 요금에서 2유로(약 2천6백 원) 추가
<b>운영</b>	경기당일 제외 매일 운영
<b>시간</b>	(단, 성탄절 당일·1월 1일 휴무) 09:30~19:30, 10:00~18:30, 10:00~14:30

# 감사와 나눔 덕이 머문 산책길

포항 덕동마을 숲

글·사진. 전부순

300여 년 전 조상들이 후손을 위해 남긴 덕동마을 숲은 세월의 깊은 멧을 담은 정자와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개천, 수련이 피어나는 연못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소나무, 그 속에 어우러진 고즈넉한 고택들은 조상의 배려와 후대의 노력으로 이뤄낸 모두의 선물이다.



## 숲과 계곡 연못이 전하는 이야기

경북 포항시에는 인간과 문화,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보물처럼 숨은 장소가 있다. 수백 년 나이를 자랑하는 고목들과 전통 한옥들이 곳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을 연상시키는 곳, 바로 덕동마을(북구 기록면 오덕리)이다. '덕(德) 있는 사람이 많다'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이곳은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풍수적으로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약 360년 전 여강 이씨들이 터를 잡으면서 정계숲·섬솔밭·송계숲 등 소규모 수구막이 숲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유학자 회재 이언적 선생의 동생 이언괄 후손들이 이곳에 자리 잡았고, 조선 중기 문신이자 의병장이던 농포 정문부 선생의 자취도 남아있다. 당시 이곳 지명은 송을곡(松乙谷)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정문부가 소나무 송(松) 자가 든 마을에서는 왜병이 반드시 패한다는 설을 믿고 이곳으로 피난오면서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됐다. 이러한 연유로 국

가기록원은 2011년 11월 덕동마을을 제4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했다. '기록사랑마을'이란 마을단위의 고유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이를 전시·활용해 기록관리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록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정부가 지정한 마을이다.

먼저 마을의 상징이자 경북 유형문화재 제243호로 지정된 '용계정'을 찾는다. 울창한 송림 그늘 아래 맑은 용계천을 굽어보는 벼랑 위에 자리한 정자로 작은 아치형 다리 통허교가 앙증맞고, 용계정을 들고나는 문도 깊은 운치를 자아낸다. 조선 명종 원년(1546)에 '용이 승천한다'는 뜻으로 세워진 이곳은 팔작지붕 겹처마로 정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2층 누각 형태다. 임진왜란 때 북평사를 지낸 정문부가 별장으로 사용한 뒤 후손들이 대를 이어 경영해온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다. 정조 이후에는 세덕사(世德祠) 부속건물인 강당으로 사용됐는데, 고종 5년(1868) 서원 철폐 시 용계정을 세덕사와 분리하기 위해 밤새도록 담을 쌓아 세덕사만 철폐되고 용계정은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용계정에서 왼쪽 쪽문을 나서면 덕동마을 3개 숲 가운데 아름드리나무로 둘러싸인 정계숲이다. 용계정 앞으로 직사각형 담장이 둘러있고, 주변 소나무 숲과 덕연계곡이라 불리는 용계천이 수려해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경영하던 구곡팔경이 있는 명승지다. 제1곡 수통연(水通淵), 2곡 막애대(邐埃臺), 3곡 서천폭포(西天瀑)



Travel Information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덕동문화길7

덕동문화마을 둘레길 코스

민속전시관(주차장)-용계정-

합류대-도송(섬솔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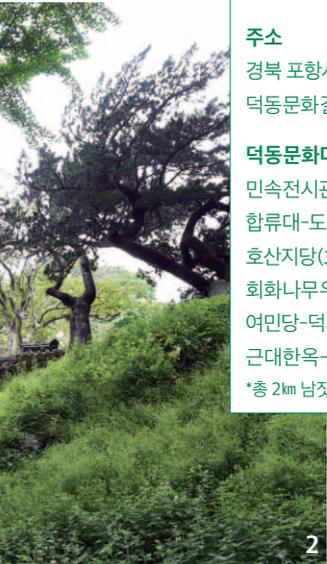
호산지당(호수)-

회화나무우물-애은당-

여연당-덕계서당-사우정-

근대한옥-민속전시관

\*총 2km 남짓



2

布), 4곡 도송(島松), 5곡 연어대(鳶漁臺), 6곡 합류대(合流臺), 7곡 운등연(雲騰淵), 8곡 와룡암(臥龍岩), 9곡 삽연(緡淵)이다. 용계정은 제5곡 연어대 부근에 있다. 400살 된 은행나무와 160년 된 향나무, 주변에는 느티나무, 벚나무, 불두화, 모란, 배롱나무 등이 명승의 역사성과 깊이를 더하며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뽐낸다. 포항 시내에서 제법 거리가 멀고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매년 여름이면 피서객들로 성시를 이루는 소담스런 계곡이다. 그 위쪽에 덕동마을 최고 절경을 자랑하는 '호산지당'이라는 아담하고 정겨운 연못이 있다. 덕동마을 최고의 명소로서 이를 소개하는 한시가 멋스럽다.

山强水弱築斯池

산이 강하고 물은 적어서 못을 만드니

洞壑風光復有奇

동리 경치가 다시 또 기이하구나.

積歲經營成宿志

오랜 세월 경영한 뜻을 이루니

將來餘慶更新期

장래 남은 경사를 또한 기약하리라.

연못 앞에 있는 솔숲은 물줄기에 갇힌 섬 같다 하여 섬솔밭으로도 부르는데, 곧게 뻗거나 휘어진 모습 등 모양이 다 제 각각이다. 무엇보다 연못 주변이 나무데크로 보행로가 정비돼 걷기에 편하고 보기에도 좋다.

오랜 삶 내음 짙은  
고택의 정취

350년 전 마을 50여 세대가 식수로 사용했다는 회화나무 우물을 지나 옛집(애은당·사우정·여연당·덕계서당)들이 즐비한 마을로 발길을 돌린다.

고택은 박제된 집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사는 살림집이라 무작정 들어가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고택은 마을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자 길주목사를 역임한 정문부 가족들이 피난처로 사용한 집이 애은당(愛隱堂)이다. 사랑채와 대문이 붙어 있고 5칸 안채가 있다. 왼쪽에 창고와 방이 붙어 있어 'ㄱ'자 형 안마당을 형성한다. 안채 왼쪽에 방앗간채, 오른쪽은 별당으로 구성되어 당시 상류층 생활상을 잘 보여준다. 경북 민속자료 제158호 여연당(與然堂) 또한 정문부가 살다가 임진왜란 이후 손녀사위 이강에게 넘긴 집이다. 이강은 다시 차남 덕령에게 물려주어 후손들이 거주했다. 안채와 사랑채는 'ㄷ'자 형, 대문을 들어서면 부속채와 더불어 'ㄱ'자 형

안마당을 구성한다. 덕계서당(德溪書堂)은 정확한 건립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유교 봉제사 관습 일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 가치가 크다.

수백 년 전 의복과 식기 등 유물 200여 점이 전시된 민속전시관 앞에서 시작한 덕동마을 둘레길은 용계정을 시작으로 수구막이 숲을 지나 생태연못 명상의 길과 감사의 길을 돌아 나와 고택들을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숲길을 포함해 약 2km 남짓, 사부작사부작 걸어도 1시간 30분이면 충분한 길이지만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 1 고택가를 한가로이 거니는 탐방객
- 2 덕동 용계정 왼쪽 출입문을 나서면 정계숲이다
- 3-4 과거 상류층 생활상을 짐작케 하는 여연당과 애은당
- 5 덕 있는 사람이 많다는 설이 전해지는 덕동마을 전경



3



4



5

# 목표 향한 엔진 가동

## 추진력 기르기

직장 내에서 일은 목표수립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의 연속으로 이뤄져 있다. 목표는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며 추진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다. 돌아가더라도 목표에 당도하면 되지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

글. 어용일  
(경영컨설턴트, <나의 실행력 높이기> 저자)

## 추진력 키우는 워밍업

혹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으로 무기력증, 자기혐오, 직무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이다.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에서 추진력은 시작된다.

## 번아웃 증후군 대표 증상

\*10가지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되면 번아웃 증후군 의심

- 아침에 출근할 생각을 하면 피곤해진다.
- 기력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낸다.
-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는다.
- 만성적인 감기, 요통, 두통 등 증상에 시달린다.
- 감정 소진이 심해 우울함을 느낀다.
- 주어진 업무에 있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다.
- 업무량 처리 속도가 이전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 더 빨리 쉽게 지치며 잠을 자도 피로하다.
- 일과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 번아웃 증후군 벗어나기

- 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멘토를 두어 상담한다.
- ② 퇴근 뒤에는 집으로 일을 가져가지 않는다.
- ③ 하루 10~15분 산책한다.
- ④ 숙면을 위해 잠자리 습관·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한다.



**긍정의 힘, 목적주의 방식의 추진**

추진하는 방식은 발생주의와 목적주의로 나뉜다. 발생주의는 문제점을 찾고 원인을 파악한 뒤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거주의 방식이다. 반대로 목적주의 방식은 목적을 정한 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실행할 것인지 생각하는 미래지향 방식이다. 발생주의 방식은 문제 원인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목적주의 방식은 목표를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따라서 추진할 때는 발생주의 방식보다 목적주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발생주의 VS 목적주의 방식 예시**

**발생주의**

지역사회와 고립된 기업 이미지 원인 분석  
→부정적 관점으로 목표에 접근

**VS**

**목적주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이미지 제고 위한 과제  
→긍정적 관점으로 목표에 접근

**추진 범위 좁히기**

추진력은 말 그대로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힘이다. 나를 발목 잡는 피로감과 우울함을 떨쳐냈다면 전진은 그리 어렵지 않다. 다만, 마음만 앞서 목표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하면 추진 도중 의지가 꺾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해 가야 할 방향을 잃을 수 있다.

가령, 글로벌 1위, 매출증대, 기업문화 개선 등의 목표는 추진력을 키우는 데 있어 너무 범위가 큰 주제들이다.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눈높이에 맞춰 단계별로 추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진한 뒤에 따라올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한다. 그 결과가 고객만족인지, 원가절감인지에 따라서 실행 내용이 달라진다. 여행을 서울로 갈지 제주도로 갈지에 따라 여행 준비물, 비용, 일정 등 많은 것이 달라지듯 실행으로 무엇을 얻을 것이냐에 따라 내용, 일정, 방법 등이 달라진다.

**추진 범위 예시**

**기업문화 개선 →**

- 눈을 마주치며 미소로 인사하기
- 하루 세 번 동료 장점에 대해 칭찬하기
- 점심식사 뒤 산책하며 직원들과 대화하기
- 등으로 구체화

**과제 아닌 항목으로 추진하기**

조직은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과제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엄밀히 분석하면 추진은 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으로 하는 것이다. 추진 항목은 실제 몸을 움직이는 행동들을 나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입사원 역량 향상을 위해서 신입사원 대상 교육을 진행한다던가 사섭외, 교재준비, 일정·장소확정, 이동방법, 비용 등 여러 가지가 추출되는데 이를 추진항목이라고 한다. 즉, '신입사원 교육'은 과제이며 추출된 항목들이 추진항목인데 이를 하나씩 해결한 뒤 마지막으로 취합해 신입사원교육을 실행했다고 보고하는 것이다. 🌟

**역방향 수립 예시**

일반적으로 일정계획은 순방향과 역방향 수립방법이 있다. 순방향은 오늘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일정계획을 수립해 도달점까지 가는 방식이고 역방향은 목표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수립해 시작날짜를 찾는 방식이다. 계획은 순방향으로 일정수립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추진할 때는 역방향으로 일정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주일 뒤 보고서 제출**

- 6월 20일 제출 →
- 6월 18일 보고서 수정·보완 →
- 6월 16일 보고서 작성 →
- 6월 13일 자료 수집



# 언덕 너머 신세계

변화(變化)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형상적 변화와 물성적 변화다.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반응하는데 이 변화들은 때론 오르막길을, 때론 내리막길을 통해 인생의 묘미를 깨닫게 한다.

S-OIL  
변화와 성장의  
화학법칙

[전이상태론] 이야기

## 1 전이상태론 법칙

화학반응 이론 중에 '전이상태론(轉移狀態論)'이 있다. A와 B의 반응물이 C라는 생성물로 가기 전 '반생성물'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화학반응식으로  $AB^*$ 라 표시한다. 이런 반생성물은 활성화 에너지라는 큰 언덕을 넘어야 안정되고 새로운 물질로 바뀔 수 있다. 생성된 결과물로 볼 때는 자연스럽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반대로 쉽게 생성된 물질은 또 다시 다른 반응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화학반응을 설명할 때 전이상태론과 충돌론(衝突論)을 많이 도입한다. 화학반응이 분자단위의 반응인 만큼 분자끼리 잦은 충돌이 있어야 반응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자끼리 충돌해 새로운 생성물이 만들어지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화학반응은 반응하고자 하는 물질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적당한 에너지가 있어야 언덕을 넘어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글. 우항수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촉매공학박사이자 울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겸임교수이다. 한국화학공학과 울산지부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수소산업협회 이사다.

## 반응이 만드는 새로움

- 1월 촉매
- 2월 용액
- 3월 공유결합
- 4월 탄화수소
- 5월 오버탈
- 6월 전이상태론
- 7월 전자 호스트와 게스트
- 8월 키랄화합물
- 9월 동소체
- 10월 가시광성
- 11월 수소
- 12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결혼과 취직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과 여러 곳을 접촉해야 만날 확률이 높아지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언덕을 넘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언덕을 넘어야만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신세계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충돌과 신세계를 음악적으로 표현한 이가 바로 드보르작이다. 체코의 음악가이지만 미국 음악의 질을 높여 달라는 부탁으로 초빙돼 곡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드보르작의 명곡 '신세계 교향곡'이다. 작가는 이 곡에 미국의 발전상에 대한 예찬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동시에 담았다.

당시 미국은 개척시대부터 온갖 고난을 겪으며 가는 곳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인권과 자유, 평등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했다. 경제학자들 역시 오늘날 미국 발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철도 건설을 통한 물자 대량 수송을 꼽는다. 더 넓은 지역까지 물적, 인적 자원의 교류가 가능해지면서 철길 옆으로 전봇대를 세우고 통신시설을 갖추면서 지리적 거리를 단축했다. 철길 주변으로는 송유관을 매설해 전국으로 에너지와 화학원료를 공급했다. 결국 모태인 유럽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뤄낸 것이다. 오늘의 미국은 수많은 도전과 응전으로 세워진 결과다. 많은 난관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건설되지 못할 나라였다.

## 2

전이상태론  
법칙

## 위기를 기회로

### 화학용어사전

#### 전이상태론

화학 반응을 하는 물질계가 반응계(물질계 초기 상태)에서 생성계(최종 상태)로 변화하는 도중 자유 에너지가 최대로 되는 상태. 이때 활성화 에너지라는 큰 언덕을 넘어야 안정되고 새로운 물질로 바뀐다.

## 넘어야 보이는 희망

## 3

전이상태론  
법칙

우리나라 역시 짧은 시간 내 산업 발전을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바짝 다가섰다. 한때 가파른 성장을 경험한 이들은 현재의 성장 폭이 더디고 조금 지체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두가 재도약을 위한 힘을 축적하는 시간일 수 있다. 물론 시련은 아직 남아 있다. 경제 불황, 고용절벽, 낮은 출산율 등 확실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불안한 오늘에서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더 큰 고개는 더 낮은 안정된 평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덕을 넘지 않으면 고개 너머의 신세계를 볼 수 없다. 온통 녹음으로 덮인 뜨거운 시기가 지나면 햇볕 아래 결실을 맺는 때가 돌아온다. 강렬한 열기는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좋은 조건이다. 즉 충분한 전이상태에너지로 반응고개를 넘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신세계를 볼 수 있는 언덕을 넘길 기대해 본다. 신세계 교향곡을 만들며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은 누군가처럼 말이다. 🌻



인 생  
즐 기 는  
자 격



[스펙형] 취미 정보

스펙은 취업문턱을 넘으려는 청년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중장년에게 새로운 배움과 도전은 제2의 인생으로 진입하게 하는 지혜의 스펙이 된다. 취향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중장년 유망 자격증에서 멋진 신세계를 발견한다.



## 전천후 만능 비행

### 드론기사 자격증

조종기로 직접 조종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 다양한 모양을 가진 군사용 무인 항공기로 출발한 드론은 이제 군사용뿐 아니라 산업, 촬영, 스포츠, 여가 등 많은 곳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 모두 드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아마존은 이미 드론 배달 서비스를 선보이며 유통산업에 후폭풍을 일으켰다.

인간이 하는 많은 노동을 드론이 대신하는 것은 분명 미래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농약 살포, 택배 운송, 공기질 측정 등 다방면에서 활용성이 뛰어난 만큼 드론을 활용한 미래 신 직업도 기대해볼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취미생활로 장난감 드론을 조종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노후 준비를 위해 드론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중장년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다만 12kg이 넘는 산업용 드론을 날리려면 반드시 드론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 시험은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교육기관이나 허가받은 민간기관에서 실전 교육을 받은 뒤 응시 가능한데, 현재 전국 드론 교육기관이 350~400개가량 급증할 만큼 관심이 뜨겁다.

#### 여기 어때요?

##### 네이버 포스트 '아나드론스타팅'

드론 분류에 대한 상식부터 국내외에서 출시된 다양한 드론 기종, 드론 관련 문화소식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제목처럼 세상의 모든 드론 이야기를 한데 모았다.

\*네이버 검색 창에 '아나드론스타팅' 검색

## 우리집 마스터 셰프 되기

### 일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낚시를 취미로 하거나 뒤늦게 낚시에 입문한 경우 생선 손질법과 생선요리는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일식조리를 추천한다. 사실 해물요리는 가법계 일본 가정식으로 시작해도 좋다.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쉽게 일식 레시피를 배울 수 있어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취미생활로 얼마든지 메뉴를 구현할 수 있다.

최근에는 남성을 위한 소규모 요리레슨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과 교류하며 요리도 배우고 식사도 즐기는 친목모임으로 인기가 많다. 무엇보다 혼자 즐기는 취미로 그치는 것이 아닌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남다른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전문적인 배움을 원한다면 조리학원을 다니는 것도 좋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수강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소규모 레슨보다는 친목 요소는 덜하지만 교육에 집중해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 유익하다.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배움에 집중하면 실력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 이런 책 어때요?



##### <일본 가정식 260>

일반 가정에서 해먹을 수 있는 '일본 요리'를 소개한 책으로, 요리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매일 먹는

반찬과 식단, 손님 상차림에서 명절음식까지 일본 가정식 260가지가 담겨 있다. 요리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사진으로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맛을 더하는 핵심비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한다.

## 세대가 함께 즐기는 우리 놀이

### 전통놀이지도사 자격증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사라지면서 우리나라 전통놀이의 흥과 멋도 점차 잊히고 있다. 이에 최근 지역별 평생학습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전래놀이지도사 강좌가 개설돼 사라진 놀이문화를 되살리고 중장년 세대가 인생 2막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도록 장을 열고 있다.

전래놀이지도사 강좌는 잊고 있던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게 해 수강자들이 아련한 향수를 느낀다. 강강술래, 제기 만들기와 딱지치기, 비석치기 등 예전에는 익숙했지만 지금은 기억 너머로 사라진 놀이를 오랜만에 접할 수강자들은 아이마냥 강의에 푹 젖어든다.

나아가 장명루 만들기와 허수아비 줄다리기, 언어확장놀이, 산가지 놀이와 해오름 놀이 등 다소 낯선 놀이지만 오히려 게임 등 현대 오락에 익숙한 요즘 세대에는 신선한 자극과 흥미를 선사한다. 🌻

#### 여기 어때요?

#####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강좌가 개설돼 있다. 전통놀이는 물론 중장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있다.

www.uill.or.kr

# 강렬한 사랑의 빛 파랑

## 신화 속 사랑 그리고 색채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는 반 고흐의 <해바라기>나 다빈치의 <암굴의 성모> 같은 유명한 작품들 외에도 수많은 걸작들이 소장돼 있다. 티치아노의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역시 이 미술관의 걸작 중 하나다. 내셔널 갤러리 르네상스 회화실에 전시돼 있는 이 그림에는 맑고 푸른색의 옷을 입은 여자와 붉은 망토를 걸친 남자 그리고 한 무리의 군중이 등장한다.

티치아노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캔버스 안에 그리스 신화 속 일화를 담아냈는데 내용은 이렇다. 영웅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르스의 미궁 속 괴수를 죽이고 그 안에 갇힌 아이

들을 구하기 위해 낙소스 섬에 온다. 테세우스를 흠모하는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는 그에게 미궁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실꾸리를 쥐어준다. 테세우스는 미궁에서 괴수를 죽이고 인질로 잡힌 아이들과 함께 실을 따라 탈출한다. 그러나 임무를 완수한 영웅은 아리아드네를 버린 채 배를 타고 섬을 떠나 버린다. 슬픔에 잠긴 채 해안가를 걷고 있는 아리아드네를 술과 축제의 신 바쿠스가 발견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전차를 타고 쏜살같이 섬으로 내려온다. 그리고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노라 맹세하며 아리아드네가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 하늘로 던진다. 그림의 왼편 위를 보면 대낮

## 안료의 화학반응 & 티치아노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16세기 베네치아는 유럽 미술의 중심이자 예술 부흥의 원천지였다. 당대 명성을 떨친 티치아노는 격이 다른 풍부한 색감 표현으로 조반니 벨리니와 함께 베네치아 화파의 거장으로 꼽혔다. 이들은 남다른 정보와 다양한 재료 수급으로 다른 유럽지역 화가들보다 다채로운 색상을 구현했다.

글.  
이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원경(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바쿠스와 아리아드네>  
1520~1523년·캔버스에 유채·172.2cm×188.3cm·런던 내셔널 갤러리



<비너스와 류트 연주자>  
1560년경, 캔버스에 유채, 205cm×157cm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인데도 불구하고 둥근 모양의 별자리가 반짝이고 있는데 이 별들은 아리아드네가 썼던 왕관이다. 막 왕관을 던진 바쿠스는 마치 공을 던진 직후 투수 같은 모습으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다.

### 500년 가치 빛나는 물감 도매상의 선물

그림 <바쿠스와 아리아드네>는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그른 대각선을 경계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뉜다. 왼편 위쪽의 삼각형은 맑고 순수한 아리아드네의 세계다. 이 세계에는 푸른 하늘과 바다, 초록빛 나무 그리고 하늘처럼 푸른 망토를 걸친 아리아드네가 있다. 오른편 아래쪽 삼각형은 어둡고 음침한 바쿠스의 세계다. 여기에는 춤추는 무녀, 반인반수의 사티로스, 술 취한 채 송아지 다리를 들고 흔드는 젊은이, 뱀과 싸우는 사람 등이 어지럽게 엉켜 있다. 방금 전까지 어두운 세계에 속해 있던 바쿠스는 사랑의 힘으로 인해 맑고 푸른 아리아드네의 세계로 이끌려간다. 그가 걸친 붉은 망토는 금방이라도 펼쳐거리는 소리를 낼 듯 생동감 넘친다. 마치 바쿠스를 온통 휘감은 사랑의 불꽃처럼 말이다. 한편 바쿠스의 위세에 놀란 아리아드네는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선다.

베네치아 르네상스의 대가 티치아노는 그리스 신화 속 에피소드를 빌려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매혹적으로 그려냈다. 이 그림은 페라라의 알폰소 데스테 공작이 티치아노에게 청탁한 작품이다. 르네상스의 군주들은 고전에 대한 자신의 지성을 과시하기 위해 그리스 신화를 담은 그림들을 즐겨 청탁하곤 했다. 화가들 역시 신의 모습을 빌려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관능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 신화를 좋아했다.

이 그림이 다른 르네상스 회화들에 비해 돋보이는 이유는 화면의 반 가까이를 채운 푸른색 때문이다. 문지르면 금방 푸른 물감이 묻어날 것 같은 화면 속의 하늘과 바다는 이 그림이 그려진 지 무려 50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게 만든다. 16세기에는 안료를 아마씨유에 개어 반고형 상태로 만들어 그리는 유화가 널리 보급됐다. 화가들은 15세기 후반까지 사용된 템페라(가루 형태 안료를 계란 노른자에 섞어서 그린 그림)에 비해 수정이 가능하고 덧칠하거나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는 유화 물감을 선호했다. 문제는 이런 물감의 재료인 안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안료는 도시의

약방에서 약과 함께 팔았다.

이 가운데 베네치아는 동서양 무역, 특히 귀중품과 사치품 무역의 중심지로서 벤데콜로리(Vendecolori)라 불리는 물감 도매상이 존재했다. 이들은 갖가지 색깔의 안료와 염료, 착색제 등을 전문적으로 수입하고 팔았다. 베네치아 화가들은 벤데콜로리의 상점에 와서 새로 들어온 물감들을 구입하고 다른 화가들의 소식이나 유럽 각지의 회화 경향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벤데콜로리들은 단순히 물감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안료들이 어떠한 화학반응을 통해 선명한 색감을 내는지도 이해하고 있었다. 티치아노, 벨리니, 로토 등 16세기 베네치아 화가들의 그림을 분석해 보면 황화비소로 만든 주황, 분쇄한 모래로 만든 유리 착색제, 한층 투명한 색감을 내는 안료 등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최신 재료들이 사용됐음을 알 수 있다. 티치아노 작품 속 파랑이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빛나고 선명한 것은 이 같은 숨은 물감 전문가들의 공로 덕분이기도 하다. 🌻



# 우애의 날개로 동반 비상

윤활기유 중국 배급사 사업협력 25주년 행사



우리 윤활기유의 중국 내 배급사인 피오소에너지(FEOSO ENERGY)와 사업협력 2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5월 18~20일 중국 운남성 쿤밍(Kunming)과 리장(Lijiang)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봉수 사장과 안종범 수석부사장, 배중호·강기태 전무, 김인찬 기유마케팅팀리더 등 우리 임직원과 피오소에너지 임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반세기 동안 굳건한 협력으로 시장 수성과 확대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자축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 헌신한 임직원 서로 감사 인사를 나눴다.

박봉수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에스-오일과 피오소에너지 양사는 한결같이 협력해 왔고, 그 덕분에 최고 품질의 윤활기유를 중국 고객들에게 공급하면서 확고하고 선도적인 시장 지위를 점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종범 수석부사장은 양사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나타내면서 “윤활기유 시장 경쟁이 날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관계강화를 위한 항구적인 노력을 지속해 미래 성장을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아울러 고품질 윤활기유 공급

과 마케팅 지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공의 결실을 목표로 한층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업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피오소에너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3일 동안 깊은 우애를 다지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쿤밍에서 양사 임직원은 선물 교환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을 전하고, 리장에서는 북쪽으로 15km 지점의 옥룡설산에 올라 해발 4천500m 고지에서 각별한 추억을 남겼다. 🌸



# S-OIL NEWS

## 인천저유소 안전순회

인천저유소 안전순회(Safety Walk-through)가 5월 9일 진행됐다. 이번 안전순회는 현장점검으로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임원 방문을 통한 격려 메시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안중범 수석부사장과 서정규 전무, 임희승 상무를 비롯한 본사·저유소 임직원 21명은 저유소 현장을 엄밀히 살피며 개선사항을 짚고 세부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했다. 한편 인천저유소의 현안을 논의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날 안전순회를 통해 파악된 우수한 안전관리 사례는 저유소별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물류와 지역본부·지사가 지속적인 교류 증대를 통해 시장점유율 목표달성에 한뜻으로 힘을 모을 예정이다.



## 대한민국전기안전대상 은탑산업훈장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민국전기안전대상에서 김상배 계전기기술팀 리더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5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리)에서 개최됐다. 김상배 팀리더는 국내 최초로 초고압(345kV) 지중 송전선로의 관로식 시공을 도입하고 분리수전과 수전선로 이중화(154kV) 등으로 사업장 내 전기설비 신뢰성과 전원 공급의 안전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RUC·ODC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최대 규모 인버터 설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전기 에너지 절감을 실현했다. 대한민국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으로 국민 안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향한 실천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JUNE 2019



### 윤활기유 국내 고객 기술 세미나

우리 윤활기유 국내 고객 대상의 기술 세미나가 5월 16~17일 롯데리조트부여(충남 부여군 규암면)에서 개최됐다. 우리 제품의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고 시장 정보를 기초로 소통해 새로운 사업 성공의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세미나에는 22개 고객사의 구매·기술·영업 실무자 34명이 참석했다. 고객들은 우리 윤활기유 제조 공정 강의를 통해 원재료에 관한 이해를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 연료 다변화에 따른 윤활유 시장 현황과 전망을 살피며 향후 사업 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 교통사고피해 화물차 운전자 자녀 지원

우리회사가 자회사인 에스-오일토탈유탄윤활유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5월 31일 화물복지재단(서울시 강남구 언주로)에서 열린 전달식을 통해 총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사업은 2015년 시작했다. 뜻밖의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가정에 경제·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숨은 주역으로서 묵묵히 일하며 국내 화물 수송분담률 91.1%(통계청 2019년 3월 기사자료 기준)를 책임지고 있다.



### 국내 선박 수송 선·화주 상생간담회

우리 정유제품의 국내 선박 수송을 맡고 있는 선주들과 상생·협력 관계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항 선·화주 상생간담회가 5월 17일 경남 양산에서 진행됐다. 국내 선박 수송 계약 선사 대표자들과 우리 임직원 등 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 수송과 관련한 주요 동향과 국제해사기구(IMO) 황 함량 규제 시행 등 향후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리회사는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선·화주 간 관계강화를 목표로 해마다 내항 선·화주 상생간담회를 시행하고 있다.

# 나누는 웃음 배가 되는 행복

**HYC공장봉사단  
노인복지관 레크리에이션 활동**

글. 피준호(탈황1과)



지난해 말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HYC공장이 신설되고 사회공헌활동 편성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 부서에 정유3과와 동력3과가 편입된 뒤 함께 올해 첫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우리와 함께할 이들은 지난해와 같은 울산 중구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다. 우리 측 봉사자도 16명이 참석해 오랜만에 어르신들과 풍성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복지관을 벗어나 하모니카페서 진행됐다. 김화수 중구노인복지관 간사의 2018년 봉사활동 후기 및 2019년도 봉사 계획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마자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환한 웃음으로 등장했다. 가위바위보로 진 팀이 단체로 춤을 추는 게임, 서로 안마를 해주며 진 사람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임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어르신들과 봉사자가 2인1조가 돼서 패션쇼와 디스코타임을 가진 뒤 마지막 엔딩포즈를 취하는 게임에서는 너무나 할 것 없이 몸을 사리지 않고 춤을 춘 덕에 여기저기서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다. 지금껏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웃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 이어진 순서는 5분 안에 조별로 아름다운 꽃을 만드는 게임으로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온몸으로 꽃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허리를 잡고 기차여행을 떠난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은 종착역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함께 둘러앉아 푸짐한 전복비빔밥을 먹었다.

올해 HYC 부문 봉사목표는 모든 사우들이 봉사활동에 한 번씩 참가하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에게 큰 웃음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음을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하기를 바란다. 🌻





# 어느 멋진 하루

기독신우회봉사단  
시각장애인 동행 나들이

글. 방경운(환경관리팀)



울산에는 약 5천 명의 시각장애우가 있다. 그러나 울산 어디에서도 시각장애우를 쉽게 만나볼 수가 없다. 그만큼 바깥나들이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우리 회사가 올해로 14년째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50명의 시각장애우와 함께 공기 좋은 곳에서 산책하고 점심도 같이 먹으며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게임하는 등 알찬 프로그램을 해마다 기획한다.

지난 4월 6일에는 약 100명의 시각장애우와 함께 경산에 있는 삼성현역사박물관에 다녀왔다. 사전답사 때 사람이 별로 없어 조용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좋아 많은 가족단위 나들이객로 가득 찼다.

흥에 겨운 시각장애우들은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며 계절의 찬란한 날씨를 만끽했다. 행복이 묻어난 그들의 표정이 정말 순수했다. 봉사자들도 덩달아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시각장애우들이 항상 외치는 구호 '불편은 있어도 불행은 없다'를 함께 외치며 현재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다.

시각장애우와 함께 한 짧은 두 시간이 금방 흘렀다. 내년에는 또 어떤 게임과 프로그램으로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



# 마음 가득 봄바람

## 제주 햇살나눔 캠프 후기



우리회사는 희귀 난치성 질환과 싸우는 어린이와 환아 가족을 위해 2006년부터 햇살나눔 캠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 캠프는 4월 25~27일 제주 일원에서 펼쳐졌다. 다채로운 참여 프로그램과 투어 기회가 제공된 가운데 환아 가족이 직접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넷([www.bokji.net](http://www.bokji.net))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기며 감동을 전했다.

###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어요

글. 곽현진(구은혜 환아 엄마)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에스-오일 임직원분들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아이와 여행하는 게 쉽지 않아 늘 주저했는데 이렇게 별 탈 없이 다녀왔네요. 숙박부터 식사, 관광까지 제공해주셔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행기간 동안 밤마다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휠체어를 생각해 동선을 안내해주는 등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아이 낳고 한 번도 탈 기회가 없던 놀이기구를 타보고 모처럼 부부가 함께 손잡고 걸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다른 환아 가족과 교류하며 정보를 나눈 시간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은 환아 가족이 누리길 바랍니다.

### 모두에게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글. 김수현(옥지찬 환아 엄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캠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행 내내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신경써주신 에스-오일 자원봉사자들과 간호사 선생님, 사진작가님, 가이드 선생님까지 모두에게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특히 자녀 연령대별로 큰 아이부터 막내까지 봉사자가 팀을 나눠 돌봐주셔서 저희 부부는 십여 년 만에 처음 놀이기구를 타봤습니다. 마치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신 관계자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덕분에 가족 모두 행복했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





## 바다에 띄운 푸른 희망



### 연구개발팀봉사단 지체장애인 동행 나들이

글. 이재득(연구개발팀)



연구개발팀이 울산남구종합 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체장애인들과 함께 한지도 6년이 지났다. 함께 쌓은 추억이 많아질수록 첫 만남 때 가졌던 서먹함은 사라지고 끈끈한 우정이 피어났다. 달에 한 번 만나지만 봉사자와 수혜자 모두 이 시간을 기다린다.

지난 5월 25일에는 지체장애 아이들에게 좀 더 다양한 체험 기회를 선물하기 위해 부산 아쿠아리움으로 향했다. 장소에 도착하니 아이들을 반기듯 모래축제가 한창이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아이들도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봉사자들과 짝을 지어 아쿠아리움에 입장한 아이들은 신기한 바다생물 등장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였다. 목소리를 잃은 인어공주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수중 공연이 펼쳐질 때는 물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관람을 마친 뒤에는 해운대 바닷가를 멋지게 수놓은 모래작품을 감상하며 카메라로 추억을 남겼다.

이날은 직원뿐 아니라 직원 자녀를 포함해 가족이 함께 동참한 만큼 더욱 의미 있는 하루였다.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바다 세계를 탐험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입가에 웃음이 절로 번진다. 🌊





**05.25**

조영일 수석부사장(CFO) 아들 결혼

**05.26**

이민호 부사장(화학생산본부) 빙부상

**05.18**

정영광 상무(신규사업부문) 부친상

**보직변경**

**05.17**

임형석(과장.FCC1부 MHC과 교대계장)→  
FCC1부 MHC과 선임계장

김정훈(계장.FCC1부 MHC과)→  
FCC1부 MHC과 교대계장

김재혁(계장.FCC1부 MHC과 선임계장)→  
FCC1부 MHC과

**06.01**

이성곤(2급.LPG팀)→  
LPG팀(서부영업지원팀 파견)

김용진(3급.LPG팀)→LPG팀(전주지사 파견)

김진환(5급.중부영업지원팀)→남양주지사

이종귀(5급.동부영업지원팀)→부산지사

**06.10**

민홍식(4급.PO&Intermediate영업팀)→  
프로젝트추진3팀

이찬희(4급.에너지관리팀)→프로젝트추진2팀

김진수(5급.HYC 공정팀)→프로젝트추진1팀

**입사**

**05.13** 고영훈(2급.프로젝트추진1팀)

**05.20** 심현보(2급.프로젝트추진3팀)

**06.04** 강철원(3급.장치설계팀)

**정년퇴직**

**05.31** 권오중(3급.강북지사)

**퇴직**

**05.31** 강동근(주임.FCC2부 FCC2과)

**부음**

**05.05** 이광찬(VDU과) 빙부  
홍성찬(품질관리팀) 외조부

**05.06** 박연호(품질관리팀) 외조모

**05.07** 이상걸(HYC과) 부친

**05.08** 최병률(총무팀) 부친

**05.09** 양재신(구매팀) 조모  
이형석(품질관리팀) 빙부  
백경탁(해상출하과) 모친  
박준우(아로마틱생산2과) 부친

**05.11** 김영진(대외업무팀) 빙부  
김도경(PO생산과) 외조부

**05.12** 김상국(동력1과) 조모

**05.14** 김복근(광주지사) 부친  
송정민(VDU과) 부친

**결혼**

**05.19** 이승한(장치2과)

**05.25** 박홍양(FCC1과) 아들

**06.01** 정영락(자금운영팀)  
강태원(기계기술팀)

**06.02** 박정민(안전대응팀)  
박성화(정유2과)

**06.08** 김수민(브랜드마케팅팀)  
류강희(송유공장) 딸

**06.15** 조성민(원유팀)

**06.16** 김차룡(정유3과) 아들

**05.16** 강학현(아로마틱생산2과) 부친

**05.18** 이차호(기계2과) 빙부

**05.20** 이인석(서부영업지원팀) 빙모

**05.22** 고광철(IR팀) 빙부

**05.23** 허석우(자재관리팀) 빙부

**05.26** 김성국(제품운영1과) 모친  
김창완(Alkylation1과) 조모

**05.31** 황봉웅(부산지사) 빙부

**06.03** 박황일(대리점영업팀) 부친

**06.04** 조자성(군산저유소) 빙모

**06.06** 임화정(인천지사) 부친  
박형근(인사팀 부) 부친

#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핵심가치 현장> 고분자제품개발팀**  
 에스-오일은 뛰어난 인재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해 주는군요. 유영기(한성주유소.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곡천검단로)



**<고전 속 핵심가치> 정도 - 불기암실(不欺暗室)**  
 '어두운 데서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는 고사성어를 알게 돼 유익했습니다. 강재성(좋은기름주유소.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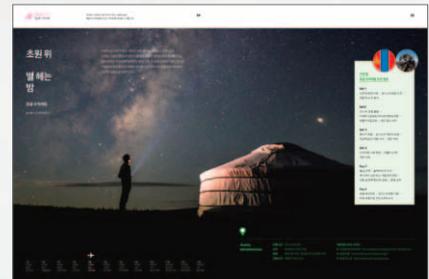
**<가족 추억공작소> 김계록 사우(품질관리팀) 가족**  
 초등생 시절 수업을 가르쳐주신 선생님과 가족을 사보에서 보게 돼 반기했습니다. 양희성(품질관리팀 양병훈 사우 가족)



**<달콤한 퇴근길> 프리다이빙**  
 특별한 취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수연(대외업무팀)



**<햇살나눔> 제주 햇살나눔 캠프**  
 세상살이의 희망과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병준(품질관리팀)



**<꽃청춘 수학여행> 몽골 유목체험**  
 알찬 정보가 많아서 흥미로웠습니다. 신유진(직영네트워크관리팀)



**<화학 속 인생법칙> 행복의 확률 높이기, 오비탈**  
 낮은 화학용어에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는 통찰을 얻습니다. 이상현(서진주충전소.경남 진주시 판문로)



**<주요 경영활동> 챔피언스 클럽 시상**  
 같은 지역의 흥남주유소가 대상을 받아 좋습니다. 정재용(직영주유소.전북 군산시 옥산로)



##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총 다섯 군데)



##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나 잘못된 우리말 표현을 올바르게 써주세요.

01

이곳에 도착할

① 즈음 ② 쯤 연락주세요.

02

아시아 시장

① 너머 ② 넘어 세계로!

## 5월호 퀴즈 정답

###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퀴즈 당첨자

#### 블루투스스피커

이재빈(탈황2과 이시형 사우 가족) • 정병일(제품운영1과)  
김종천(품질관리팀) • 김가현(BasicChemical운영팀)

#### 휴대폰보조배터리

이원종(기계2과) • 홍세원(해상출하과 홍성민 사우 가족)  
박육기(품질관리팀) • 김상범(프로젝트금융팀)

###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 01 뜻깊은 날 자리를 빛내주신

① 내·외빈 ②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

뜻깊은 날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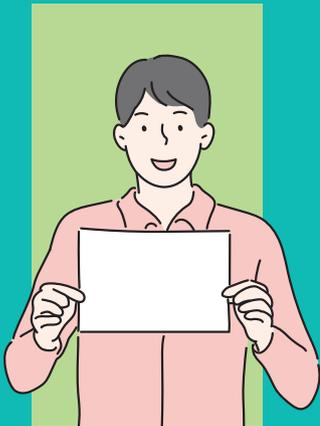
♫ 내빈은 내(內, 안)자가 아닌 내(來, 오다)자를 써서 '모임에 공식적으로 초대를 받고 온 사람'으로, '외부나 외국에서 온 귀한 손님'을 뜻하는 '외빈'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 02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10분 앞당겨

① 끝내겠습니다. ② 마치겠습니다. →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는 10분 앞당겨 '끝내겠습니다'.

♫ 정한 양을 채우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떤 일이나 과정을 중단시킬 때는 '끝내다'로 표현하며 의지대로 멈추는 것이 아닌 정한 시간을 다 채웠을 때는 '마치다'를 사용합니다.



올해 사보 표지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스-오일 리더의 일하는 방식(S-OIL leaders' way of working) 캠페인의  
세부 항목들을 한 컷 그림으로 구성해 채워갑니다.